

문화예술 섬으로서의 무용콘텐츠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dance contents as an island of culture and art

백 주 미
경희대학교

Baek Ju-mi
Kyunghee Univ.

요약

제주도는 2015년 '문화예술 섬'으로 조성하고 2016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섬'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용콘텐츠'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하기 위하여 무용콘텐츠 개발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문, 학술지, 단행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지역축제콘텐츠, 공연예술콘텐츠 중 연출적 요소, 주제적 요소, 공간적 요소, 체험형콘텐츠, 감상형콘텐츠로 나누어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방안들을 이용한 제주도와 하나 되는 무용콘텐츠를 통하여 지역발전 및 무용예술의 발전과 대중화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 서론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에서 지역의 독특한 특색과 문화적 전통을 살린 문화콘텐츠로 다양한 종류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를 이용한 상품이야말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경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21세기 유망산업이라 할 수 있다¹⁾.

우리나라의 남쪽 섬 제주도를 '문화예술 섬'으로 2015년에 조성하여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으며 2016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섬'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는 자연, 문화, 역사 등의 여러 활용 자원들이 있고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최적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들 중 반절 이상이나 무용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축제를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전통, 자연, 역사 등 무용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분야 중 무용예술이 가진 특징과 장점들을 통하여 무용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갖으며 이러한 개발 방안들을 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콘텐츠화 하고자 한다.

제주도와 하나가 되는 무용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발

전 및 무용예술의 발전과 대중화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축제와 무용콘텐츠

1. 축제의 의의

축제는 태초의 인류 삶의 시작과 함께 축적되어 이어져 온 역사와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고유의 문화성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축제는 대중들의 욕구를 문화와 전통이라는 큰 틀 속에서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그 지역의 역사성과 자주성, 그리고 지역 정체성이 결합하여 독창적인 지역문화로 이루어나갈 때 비로소 지방의 문화는 재탄생될 수 있다²⁾.

2. 축제에서 무용콘텐츠의 역할

축제에 있어 무용콘텐츠는 축제라는 이미지와 함께 무용을 대중화함으로써 일상에서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관람객들에게 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용에 대한, 더 나아가 공연예술에 대한 안목 향상 및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용공연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향유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몸을 통해 무용을 직접 체험해보므로써 무용을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무용공연을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적,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관객과 지역민들에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다가간다면, 축제 본래의 의미와

일치하는 무용공연이 될 것이다³⁾. 또한,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일상을 벗어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력을 되찾는 힐링의 역할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역사적 특징, 전통적 특징 등과 연결한 무용 콘텐츠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의 홍보 및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무용예술에 있어 상징적인 지역 또는 무용예술 저변이 갖추어진 지역 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축제로서 무용콘텐츠의 활용 사례

3.1 국외 - 중국 실경공연 “인상시리즈”

세계적인 영화감독이자 공연연출가인 장 예모가 총 연출을 한 실경공연 “인상시리즈”는 현재 중국 최고의 문화관광콘텐츠 상품이다. 중국의 계림, 운남, 항주, 해남도, 무이산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산수를 무대배경으로 하고 그 지역의 삶과 문화, 지역민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중국 문화산업 및 지역문화관광산업에 선도하는 매개체이다.

3.2 국내 - 공주시 고마나루 실경공연 “사마이야기”

2010세계대백제전의 핵심 주제공연 중 하나였던 공주시 실경공연 <사마이야기>로 고마나루, 연미산 등의 자연환경과 백제의 문화유산, 역사적 사실, 지역설화에 근거한 스토리의 공연이다.

Ⅲ. 결론 - 무용콘텐츠 개발

지역축제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1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웹사이트(<http://www.jejutour.go.kr>)에서 조사 한 바 제주도 내에 펼쳐지는 총 축제 수는 약 44개 중 무용공연이 약 26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려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러 지역축제들 속에 무용공연이 계속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공연예술콘텐츠 중 연출, 주제, 공간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섬만의 독창적인 무용작품을 만든다.

공연예술콘텐츠 중 연출적 요소로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제주도 특유의 바람, 돌, 바다, 하늘, 절벽, 숲, 올레길, 검은 모래, 흰모래 등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연출로 이용하여 무용움직임(춤)과 함께 자연친화적 무용콘텐츠를 만든다.

공연예술콘텐츠 중 주제적 요소로 ‘제주도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과 설화, 전설 등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주제로 활용한다. 축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주제, 추상적인 주제가 아닌 그 지역축제에 뜻깊은 의미가 담긴 주제를 선정한 무용콘텐츠를 만든다.

공연예술콘텐츠 중 공간적 요소로 ‘제주도 내의 역사적 장소, 자연환경, 관광지’ 등을 활용한다. 기존의 프로시니엄 무대나 야외 설치무대 같은 국한된 공간을 탈피하여 공간을 최대한 확대하고 활용한다.

체험형컨텐츠로 일반 관객들이 무용을 눈으로 보고 즐기는 향유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접 몸을 움직여보고 춤을 체험해본다. 제주도 해녀의 춤과 같은 고유 민속춤을 통한 커뮤니티 댄스 혹은 라인댄스, 플래시몹과 같이 일반 사람 누구나 따라하고 즐길 수 있는 쉬운 수준의 춤을 체험해 보도록 한다. 춤을 통해 서로 호흡하고 에너지를 공유하므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기 쉬우며 관객들은 일상으로부터 일탈함으로 인하여 잠시나마 힐링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감상형컨텐츠로 영상매체를 이용한 무용 관련 영상을 관람한다. 제주도의 춤과 관련된 영상,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 속의 춤, 드라마 속의 춤, 다큐멘터리 속의 춤, 국내·외 유명한 컴퍼니,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 관람을 제주도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한 층 더 무용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어렵지 않게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제주도와 하나 되는 무용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홍보 및 전통성과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문화예술 섬’ 제주도를 무용예술 저변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활성화시키며 무용예술의 발전과 대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 [1] 김영범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2] 서태양, 부숙진, 조태영, 세계화 시대의 지역축제 경영, 기문사, 서울, 2008.
- [3] 신명숙, 황혜원 “지역축제에 있어서 무용의 역할-2003년 경기북부지역의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 제9호, p.134, 2005.